

메시지 10

약속, 예언, 남은 이들, 회복

성경: 렘 25:11, 29:10-11, 14, 30:1-3, 10-11, 16-19, 31:1-9, 11-13, 33:6

I.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교회의 예표인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 렘 9:11-13, 행 7:38.

- A.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집합적인 예표이다 — 고전 10:1-11.
- B. 이 예표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것,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와 그 영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신의 몫으로 물려받는 것, 하락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을 본다.

II.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포로 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 렘 16:15, 30:1-3, 10-11, 16-19, 31:1-9, 11-13.

- A. “왜냐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서, 너희에게 좋은 결말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 렘 29:11.
- B. “참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 — 렘 31:3.
- C. “내가 너희를 포로 됴에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모든 민족에게서 또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곳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 렘 29:14.
- D. “처녀 이스라엘아 / 나 너를 다시 건축하리니 네가 건축되리라. / 너는 다시 손복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 렘 31:4.
- E.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 여호와의 선으로 흘러들어 가리니 / ... 그들의 혼이 물 댄 동산 같으리니 / 그들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으리라.” — 렘 31:12.
- F.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 그들을 위로하여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하리라.” — 렘 31:13.

III.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칠십 년간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 렘 25:11.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0 (계속)

- A. 칠십 년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며, 그에게 그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성전과 성의 비참한 상태가 칠십 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 렘 29:10, 슥 7:5.
- B. 하나님은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포로가 아닌 승리한 전사로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 — 대하 36:21-23.
- C.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칠십 년간 포로로 있을 것에 대한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예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도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 단 9:2-3.
 - 1.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니엘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며,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
 - 2.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었다.

IV.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쫓아 보낸 그 모든 땅에서 그분의 양 떼 중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수가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렘 23:3.

- A. 칠십 년의 포로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빌론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다 — 렘 25:11.
 - 1.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을 때, 극소수만이 반응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 된 상태에 남아 있었다.
 - 2. 오직 소수만이 선택된 땅으로 돌아왔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이들이었다 — 스 1:3, 2:1-67.
 - 3.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바빌론에 칠십 년간 포로 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렘 25:11, 29:10).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남은 이들은 이 약속에 따라 돌아왔다.
- B.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돌아온 남은 이들이지만, 매우 많은 참된 믿는 이들은 흩어져 있고 포로 상태에 남아 있다 — 시 126:1-4.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은 본래의 터로 돌아왔고 여기에 하나님의 남은 이들로 서 있다 — 신 12:5.

메시지 10 (계속)

2.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포로 상태에 남아 있다. 오직 소수의 남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합당한 터로 돌아왔다 — 신 12:11, 16:2, 시 132:13-14.
- C. 이스라엘 자손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한 것이었다 — 미 5:2, 마 2:4-6, 눅 2:4-7.
 1.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 되어 있는 데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달려 있었다.
 - a.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 b.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땅에 있어야 했다 — 마 2:4-6, 눅 2:4-7.
 - c. 돌아온 포로들인 남은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이끌어 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 — 미 5:2.
 - d. 남은 이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길이 없었을 것이다 — 눅 1:35, 2:4-7.
 2.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그분의 신약의 믿는 이들 가운데 남은 이들이 바빌론, 곧 하락한 기독교에 포로 되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라는 유일한 터로 돌아오는 것에 달려 있다 — 엡 2:21-22, 계 2:1, 딤후 3:15, 뱀전 2:5.
 - a. 주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바빌론에 포로 되어 있는 데서 나와서 교회의 합당한 터로 돌아오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드릴 남은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 계 18:4, 사 52:11, 렘 50:8, 51:6, 9, 45.
 - b. 주님의 의도는 기독교 전체를 부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을 따르며, 몸의 일부로 건축될 것이다 — 마 16:18, 18:17, 엡 1:22-23, 2:21-22, 4:16, 계 1:11, 22:16.

V.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복을 가져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렘 30:17, 33:6.

- A. 여호와와 예루살렘성에 회복과 치료를 가져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 렘 33:6.
- B. 여호와와 그들에게 넘치는 평안과 진리를 나타내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저지르고 그분을 거슬러 잘못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렘 33:6-8.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0 (계속)

C. 여호와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분께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전진된 약속을 하셨다 — 렘 33:9.

VI.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된 데서 돌아온 것은 교회의 회복을 예표한다 — 스 1:3-11, 느 2:11, 17.

- A.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본래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실되거나 손상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마 16:18, 18:17.
- B. 교회는 수 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회복될 필요가 있다 — 고전 1:2, 12:27, 롬 12:4-5, 16:1, 4-5, 계 1:11, 22:16.
- C.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의 회복은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분열적인 터로부터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다 — 시 126:1-4, 133:1.
- D. 이스라엘 자손은 바빌론으로 옮겨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대하 36:18, 스 5:14, 6:5.
1.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중심이었고, 이 유일한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보존해 주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필요했다 — 신 12:11, 16:2, 26:2.
 2.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들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여러 방면들을 상징한다 — 엡 3:8.
 3. 오늘날의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풍성을 빼앗아 갔다. 이제 주님은 바빌론으로부터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합당한 교회생활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상실된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든 방면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 엡 3:17-19, 골 1:15-20, 2:16-17, 3:4.
- E. 교회의 회복은 또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는 것으로 예표된다 — 스 1:3, 느 2:11, 17, 시 26:8, 36:8-9, 46:1, 5, 47:2, 6-8.

메시지 10 (계속)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성전은 보호가 필요했다. 성벽은 성전을 지켜 주는 것이었다.
2. 신약에서 집과 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확대와 그리스도의 증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요 3:29-30, 엡 4:13, 골 2:19.
 - a. 그리스도의 확대의 첫째 단계는 집인 교회이다.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 엡 2:21-22.
 - b. 그리스도의 확대의 둘째 단계는 성인 교회이다. 집인 교회는 반드시 성인 교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 마 5:14, 계 3:7, 12, 21:9-10.
 - c. 집과 성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이다 — 엡 2:21-22, 딤후 3:15, 계 21:2-3.
3. 하나님의 백성이 큰 바빌론에서 교회생활로 회복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수행하실 길이 없을 것이다 — 계 1:7.
 - a. 바로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 계 1:11, 3:7-10, 22:16, 고전 12:27, 1:2.
 - b.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와 기반이 될 것이다 — 계 1:7, 3:11, 19:7-9, 22:7, 12, 20.